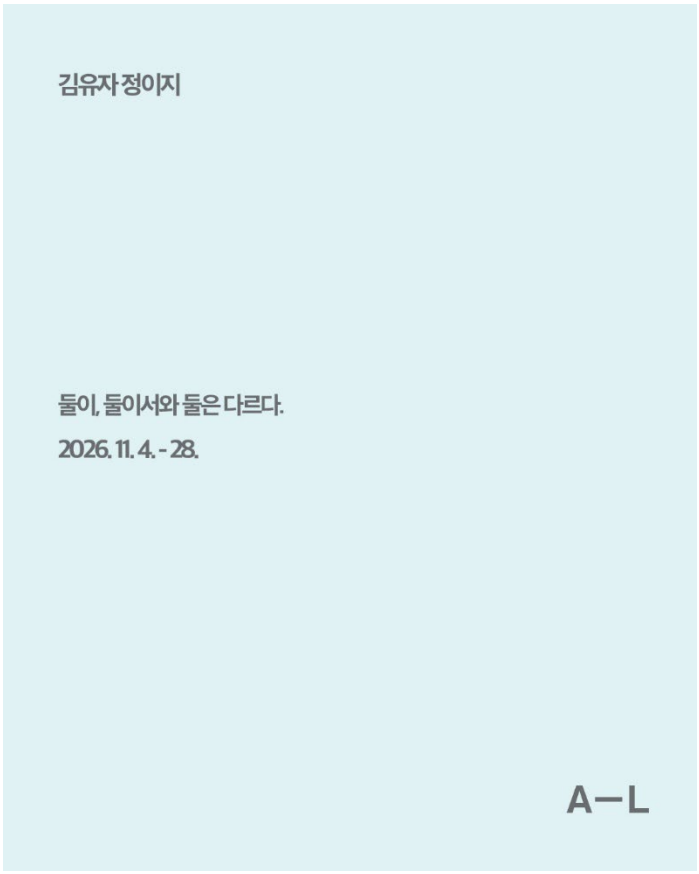
A—L

[Press Release] 총 쪽

《둘이, 둘이서와 둘은 다르다.》



- **2026년 11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김유자 정이지 2인전.**
- **회화 22점, 드로잉 11점 총 33점의 작업을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컬렉터이자 인플루언서 빈집(@binzip) 기획. 두 명의 작가가 모여 그들의 소중한 '둘'의 관계를 사진과 회화라는 두 개의 다른 매체로 조명해보는 전시.**

A—L

◯ 전시 개요

전 시 제 목: 둘이, 둘이서와 둘은 다르다. Duo

참 여 작 가: 김유자, 정이지

일　　정: 2026년 11월 4일(수) – 11월 28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A—L

◯ 전시 서문

소년이 사라진 밤.

어두운 운동장에 덩그러니 놓여진, 마치 소년이 방금 전 벗어놓고 간 듯한 비옷을 망연히 바라보는 사내. 나는 멀리서 그의 젖은 마음을 들여다본다. 소년과 운동장, 그리고 비옷은 이수명 시인의 시 '소년'에서 가져온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순간은 어떻게 남겨지는가,

거기에 음악이 흐르고 있었던가.

밤바다. 손등. 작은 공을 올려놓은 손. 믿음과 자유의 날개짓. 쇼팽공항. 공원. 눈동자. 사랑니. 피아니스트. 조각가. 포도. 눈물들. 계단참. 토르소. 여름날의 뒷모습. 다섯 알의 자두. 베니스. 나란한 시선. 고요한 손, 바르카롤(Barcarolle)과 포크. 엘리스, 그리고 엘리스.

과거의 순간들이 벽에 걸린다.

한 번 더,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은 어떻게 남겨지는가.

J 는 찰라 속에 고인, 다정함과 공허함을 동시에 품은, 공기와 빛이 머무는 자리에 물감으로 표식을 남긴다. 그가 남긴 표식에는 말할 수 없이 긴 시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조용히 새겨져 있을 거라 짐작한다. Y 는 하나의 노래 안에 이미지를 안착시키고 그들이 흘러가는 곳을 응시한다. 세심하고 정직하게, 어쩌면 서늘하게 기록하고 그들의 조화로운 높이를 가늠한다.

과거의 소금을 쌓아 올린다.

바스러지고 껴안고 흐르게 하고 멈춰 세운다.

나란히 누운 시선(Parallel Gazes). 평행의 흐름을 따라 그림과 사진이 나란히 드러눕는다. 보컬이 마지막 소절을 다 부르고도 연주가 이어지듯 서로의 작업이 서로의 후렴구가 되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다.

둘이 바라본 밤바다, 둘이서 호흡한 방의 공기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의 둘은 그때와 너무 다르다.

글. 빈집 (@binzip)

◯ 작가 주요 약력

김유자(b.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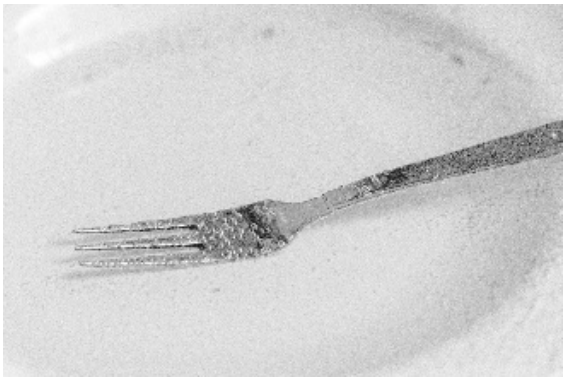
김유자는 사진 매체를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질문한다. 작업은 손상된 필름에 의해 사라진 대상, 자고 난 후 몸에 남은 흔적, 인물의 정지와 떨림 등 불명료하게 감지되는 순간들에 주목한다. 사진은 고정된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지 속에 스며있는 미묘한 움직임과 생동감이 드러난다. 이는 인물이 숨을 참거나 내뱉는 찰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기척, 또는 무언가 전환되는 듯한 긴장감으로 관객에게 다가오고, 이러한 감각은 점차 '보이는 것' 만큼 선명해진다. 김유자는 이처럼 시각적 경험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고 확장되는 순간을 통해 사진이 다성적인 감각을 담아낼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탐구는 종이의 물성과 프레임의 변주, 공간에 조응하는 설치 방식을 통해 한층 심화된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진 전공 전문사를 취득하였다. 스페이스 카달로그(2023), 김세중 미술관(2026)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합정지구, 휘슬, 일우 스페이스, N/A 에서 단체전 또한 활발히 참여하였다.

정이지(b.1994)

정이지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 예감, 감정, 분위기, 뉘앙스, 우연과 조화로움 같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요소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려 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발전시키며, 장면에 깃든 분위기와 감각을 간결한 이미지로 정제하고자 한다. 생략과 변형을 거친 화면은 영화의 한 장면 혹은 만화의 한 컷처럼 전후의 서사를 상상하게 하는데, 일상의 풍경과 삶의 보편적인 감정은 그리기라는 지난한 시간을 거쳐 작가에 의해 되새겨지고 수용되어 재탄생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와 전문사를 취득하였다. 포스트 포에틱스와 콤플렉스 갤러리(2026), 어쩌다갤러리 2(2019), 상업화랑(2021)에서 개인전을 갖은 바 있으며, 국제갤러리, 디스위켄드룸, N/A, 하이트컬렉션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A—L

○ 대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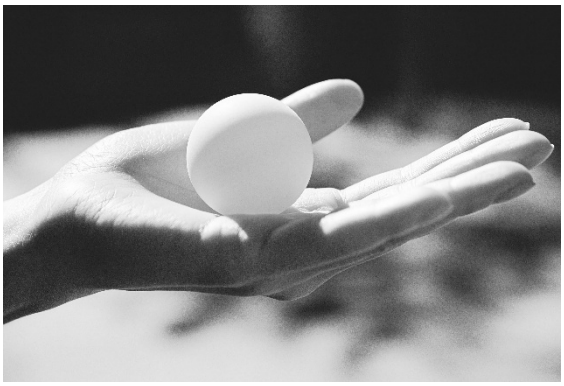
김유자

Barcarolle

2025-2026

pigment print, aluminum frame

17.4 × 25.4 × 2.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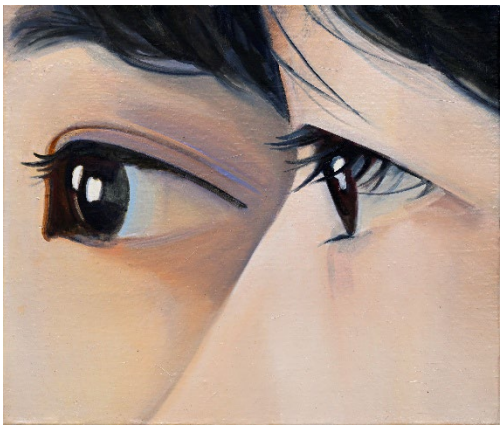
김유자

How to let a bird fly

2026

pigment print on plywood

40.8 × 60.5 × 2 cm



정이지

Eyes

2026

Oil on canvas

46x53cm



정이지

Plum, Plum, Plum ...

2026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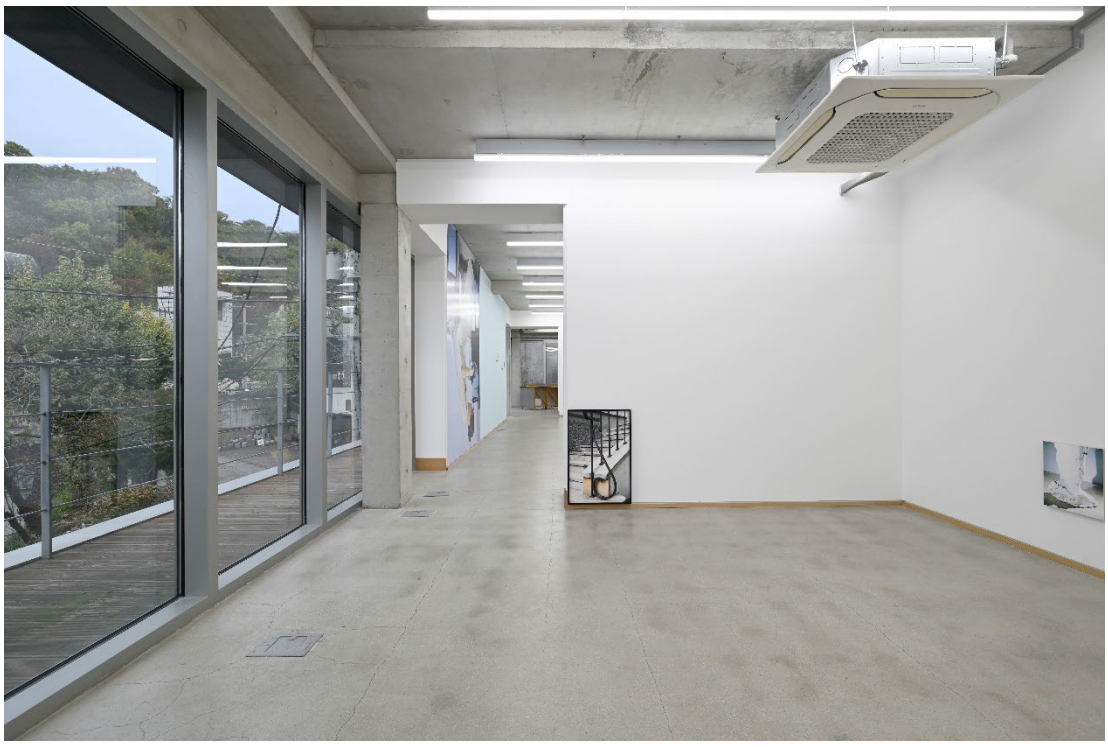
16.5x23.3cm

○ 전시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